

비즈 프리즘 | 멀티숍으로 방향 전환하는 화장품 브랜드숍

“잘 팔리면 다른 회사 제품도 OK”

자사 브랜드 중심서 타사 제품까지
아리따움라이브에 59개 브랜드 입점
네이처컬렉션 'VT X BTS' 독점 판매



네이처컬렉션에서 판매하는 'VT X BTS 에디션'. 전문성과 차별화를 강조하던 화장품 브랜드숍이 다양한 제품을 갖춘 멀티숍으로 급격히 방향전환을 하고 있다. 사진제공 LG생활건강

한때 화장품 브랜드숍(단일 브랜드 매장) 상위권을 달리던 스킨푸드가 최근 기업회생 절차를 신청하는 등 화장품 브랜드숍의 위기가 가시화되고 있다. 시장환경이 급변하면서 화장품 브랜드숍들은 생존을 위해 매장 정체성까지 과감하게 바꾸는 변신을 하고 있다.

요즘 화장품 브랜드숍의 위기가 대두된 배경에는 올리브영, 탈라블라, 룩스 등과 같은 H&B(헬스·뷰티) 스토어의 급성장이 있다. H&B 스토어가 빠르게 시장을 장악하면서 소비자들의 선호가 한 곳에서 다양한 제품을 경험할 수 있는 멀티숍으로 옮겨갔다.

여기에 최근에는 신세계백화점의 시코르, 롯데백화점의 라코, 현대백화점의 뷰티인 보우, AK플라자의 테코뷰티 등 백

화점들도 일제히 화장품 멀티 매장을 등장시키며 변화를 더욱 부채질했다.

상황이 이렇게 되자 기존 브랜드숍들이 자사 브랜드가 아닌 다른 회사 제품도 전시, 판매하는 멀티숍으로 방향을 바꾸었다. 특히 이런 변화를 국내 화장품 업계 '빅 2'인 아모레퍼시픽과 LG생활건강이 주도해 더욱 관심을 끌고 있다.

9월 말 서울 강남에 오픈한 아모레퍼시픽 아리따움 라이브 강남은 아모레퍼시픽 그룹 브랜드 외에 메디힐, 더블랩, 스틸라, 파머시 등 무려 59개나 되는 타사 브랜드를 대폭 입점시켜 화제를 모았다. 심지어 8일에는 자사 브랜드가 아닌 메디힐의 모델 현빈 팬사인회를 이곳에서 진행하기도 했다. LG생활건강 네이처컬렉션 역시 6일부

터 VT코스메틱과 방탄소년단이 협업 제작한 화장품 'VT X BTS 에디션'을 독점 판매하고 있다. LG생활건강 측은 “네이처컬렉션과 가치를 함께하는 타사 브랜드의 입점을 적극 검토할 것”이라며 “세분화된 고객 수요를 충족시킬 수 있는 상품군을 폭넓게 확보하고자 한다”고 했다.

정정욱 기자 jjay@donga.com

한눈으로 보는 경제

16일

코스피지수	2145.12	0
코스닥지수	731.50	▲ +12.63
日 닛케이 지수	2만2549.24	▲ +277.94
중상하이 종합	2546.33	▼ -21.77
국고채 금리 (3년물, 연%)	2.05	0
환율 (원/달러)	1126.50	▼ -6.50
국내금값 (원/그램)	4만4505.87	▼ -318.39

갤럭시노트9, 국내 판매량 100만 돌파
삼성전자의 갤럭시노트9이 국내에서 판매량 100만 대를 돌파했다. 출시 53일만이다. 전작인 갤럭시노트8보다는 느린 기록이다. 갤럭시노트8은 출시 48일 만에 국내 판매량 100만대를 넘었다. 삼성전자는 갤럭시노트9의 판매를 촉진하기 위해 보상 프로그램 혜택을 강화하기로 했다. 10월1일 이후 갤럭시노트9을 구매한 고객이 기존 스마트폰을 반납하면 중고 매입 시세 대비 최대 2배 보상해주는 ‘더블 보상’을 진행했다. 대상 모델은 갤럭시S7과 갤럭시S8 시리즈, 갤럭시노트 팬 에디션 등 삼성 제품은 물론 아이폰6과 아이폰7도 포함된다.

“올해 가장 크게 성장한 앱은 유튜브”

올해 가장 크게 성장한 모바일 애플리케이션(이하 앱)은 유튜브라는 조사 결과가 나왔다. 앱분석 업체 와이즈앱이 16일 올해 설치자, 사용자, 사용시간, 실행횟수 등 사용 정보를 종합해 매긴 점수(내재가치) 순위에서 유튜브는 1월1일 4788점에서 9월30일 5392점으로, 604점 증가했다. 사용자는 1월 2880만명에서 9월 3109만명으로 늘었다. 2위 삼성 페이는 910점에서 1290점으로 380점이 증가했고, 사용자는 682만명에서 1026만명으로 늘었다. 그 뒤를 이어 인스타그램과 카카오페이지의 성장폭이 컸다.

자산 10조 이상 ICT기업, 인터넷은행 소유 가능

네이버·카카오·KT가 해당

자산 10조원 이상 대기업도 정보통신기술(ICT) 자산 비중이 50%를 넘으면 인터넷전문은행을 소유할 수 있게 됐다.

금융위원회는 16일 인터넷전문은행에 대한 은산분리(산업자본의 은행소유 제한) 완화를 담은 ‘인터넷전문은행 설립 및 운영에 관한 특례법’ 관련 시행령 제정안을 입법예고했다.

인터넷전문은행 자본을 10% 이상(특례법상 한도 34%) 보유한 한도초과보유주주의 요건에서 공정거래법의 상호출자제한 대상 기업집단을 배제되 ICT 주력그룹은 허용한다는 단서조항을 담았다. 국회 정무위가 특례법을 통과시키면서 제시한 부대의견을 수용한 부분이다.

ICT 주력그룹은 기업집단의 비금융회사 자산 합계액에서 ICT기업 자산 합계액

이 차지하는 비중이 50% 이상인 경우로 규정한다.

ICT 기업은 정보통신업을 영위하는 회사로 출판, 방송, 공연우편업은 포함하지 않는다. 이에 따라 삼성, SK 등 비(非)ICT 기업은 은산분리 규정에 해당하는 반면, 네이버, 카카오 등은 자산이 10조원을 넘겨도 인터넷전문은행의 대주주가 될 수 있다. 또 이미 자산 10조원을 넘은 KT도 케이뱅크의 자본을 10% 넘게 보유할 수 있게 됐다.

이밖에 대주주 결격 사유에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 위반을 추가했으며 대주주의 사금고가 되는 것을 막기 위해 대주주와 거래를 원칙적으로 금지했다. 또 비대면 영업을 원칙으로 하면서 장애인 및 65세 이상 노인 등 불가피한 경우나 휴대전화 분실 또는 고장으로 금융거래가 일시적으로 어려울 때는 예외적으로 대면영업을 허용했다. 정정욱 기자 jjay@donga.com

IPTV 키즈 경쟁...KT 키즈랜드 2.0 출시

오은영 박사의 육아 가이드도 공개

IPTV의 키즈 콘텐츠 경쟁이 더 치열해지고 있다. 볼거리를 늘리고 증강현실(AR) 등을 활용하고, TV 콘텐츠를 스마트폰에서 즐길 수 있는 모바일 애플리케이션(이하 앱)도 내놓았다.

KT는 16일 ‘키즈랜드 2.0’(사진)을 출시한다고 밝혔다. 5월 선보인 ‘키즈랜드’에 모바일 앱 서비스와 육아 콘텐츠를 더했다. 먼저 IPTV업계 최초 어린이 전용 앱 ‘키즈랜드 모바일’을 선보였다. 올레tv 가입자의 집에서 즐기던 콘텐츠를 모바일에서 이용할 수 있다. 13개 키즈 채널과 1만 편의 주문형비디오(VOD)를 무료 제공한다. 다른 통신사 이용자도 다운로드 받아 키즈채널 13개를 무료로 볼 수 있다. KT는 자사가 가입자들에게 내년 3월까지 콘텐츠 시청 시 데이터를 무료로 이용할 수 있도록 했다. 김명근 기자 dionys@donga.com



육아 전문 상담 콘텐츠를 추가한 것도 눈길을 끈다. TV프로그램 ‘우리 아이가 달라졌어요’를 통해 ‘육아대통령’으로 불리는 오은영 박사의 육아 가이드 ‘오은영 박사의 아이 그리고 부모’를 이번엔 공개했다. 실제 부모의 고민을 바탕으로 제작한 콘텐츠를 10개 주제로 제작해 올레tv와 키즈랜드 모바일에서 볼 수 있다.

11월에는 3~5세 미취학 어린이의 호기심을 뿌로로가 대답해주는 ‘뿌로로의 왜요쇼’를 출시할 예정이다. KT는 올해 안에 소리 콘텐츠 ‘사운드북’, AR(증강현실) 기술로 동화 속 주인공이 되는 ‘TV속 역할놀이’ 등도 선보일 예정이다.



교육·퍼즐

에듀윌

9급 공무원이 되는 빠른 방법

강주현의 퍼즐월드

WWW.경품광고쿠키.kr WWW.매직스도쿠.kr

최소 2과목만 공부하면... 9급 공무원이 된다?

최소 2과목이면 9급 공무원이 될 수 있는 방법이 있다. 바로 운전직 공무원이다. 운전직 공무원은 공무원 대외 수발 및 문서 사송, 특수학교 통학차 운행, 각종 차량 운행 및 정비 등의 운전 및 관리 업무를 담당하는 공무원이다.

1종 대형면허 자격증은 필수이며 지역에 따라 대형 버스 경력이 필요한 곳도 있다.

종합교육기업 에듀윌이 운전직 공무원을 추천하는 이유는 다음과 같다. 일반 행정직은 5과목의 시험을 치러야 하는 반면 운전직은 2~3과목만 치러도 합격이 가능하다. 2과목은 자동차 구조원리 및 도로교통법규와 사회이며 3과목은 자동차 구조원리 및 도로교통법규와 국어, 한국사다. 이는 지역별로 과목수가 다르기 때문에 지역별 공고를 확인해야 한다.

영어시험이 없다는 것도 장점 중 하나다. 에듀윌이 실시한 한 설문조사에 따르면 공무원 시험에 처음 도전하는 초시생의 59%가 영어 과목이 가장 어렵다고



답했다. 다른 시험 대비 특히 까다로운 영어시험이 없다는 것이 운전직 공무원의 장점이다.

이에 반해 대우는 좋다. 기능 10급에서 9급으로 승격하면서 행정직 및 기술직과 동일한 급여와 복리후생, 보너스를 제공받게 됐기 때문이다.

이에 에듀윌은 운전직 공무원 맞춤 커리큘럼을 운영 중이다. 기본이론, 심화특강, 핵심 및 문제풀이 순으로 이어지는 ‘에듀윌 운전직 평생 패스’는 과목별 최신 교재까지 포함돼 있다.

또한 온라인 학습관리 시스템인 ‘독한 에듀윌’이 제공되기 때문에 의지가 약한 수험생의 경우 독한 계획, 독한 관리, 독한 경쟁이 포함된 해당 프로그램으로 자연스럽게 의지를 다질 수 있다. 이수진 기자 sujini22@donga.com

■ 스도쿠문제

		8	1						
		2	3		4	8			
	8	1			9	7			
4	7			1			8	3	
			5		9				
5	6		4			9	1		
	9	4				6	5		
		7	9		5	1			
			4	8					

■ 스도쿠정답

6	8	2	8	9	4	5	1	2	
8	7	1	9	2	6	7	3	9	
2	9	9	2	8	1	4	6	8	
1	6	2	8	4	7	8	9	5	
2	9	7	6	8	5	3	2	1	
8	8	9	9	1	2	6	2	4	
4	4	8	2	9	9	8	1	3	
9	1	8	4	7	2	7	2	9	6
5	2	3	1	6	8	9	4	7	
5	9	6	2	2	8	1	4		
2	1	8	9	8	7	4	7	6	
6	4	2	1	8	5	2	9	3	
8	5	2	4	7	2	9	3	6	1
4	8	9	2	6	1	2	8	9	
7	1	9	3	4	8	5	4	2	4
3	2	5	7	1	6	9	4	8	8
9	8	6	9	4	2	1	3	2	7
1	2	4	8	9	6	6	9	2	2